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

추석 미사 시간 (9월 10일, 토)	아침 06:30, 낮 12:00
-------------------------	-------------------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9월 8일(목)까지 반드시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낮 12시 미사 후 음식 나눔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없습니다.
- 토요일미사 및 어린이 미사는 모두 봉헌합니다.
- 9월 9일(금) 금육재는 관면하며, 당일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 알 림

- 9월 9일(금) 사무실 휴무입니다.
- 9월 14일(수) 저녁 8시 본당 임원 모임이 식당에서 있습니다.
- 9월 15일(셋째주 목요일) 10시 시니어아카데미가 개강합니다.
- 9월 16일(금) 병자영성체(봉성체) 있습니다.
- 10월 1일부터 보스코홀 장례식장을 재개합니다.
- 유아세례 및 태중의 아기 축복 일정 안내
 - 유아세례 : 첫째 토요일 오전 11시
 - 태중아기 축복 : 셋째 토요일 오전 11시
 - 접수 및 문의 : 본당 사무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M.E.	9월 4일(일), 11시 50분	1교실
위령봉사회	9월 4일(일), 12시	강 당
제대회	9월 6일(화), 10시 30분	2교실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9월 5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8월 31일 현재 ₩12,870,000 납부되었습니다.

12시 미사 성가대원 모집

- 12시 미사에서 성가 봉사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 많은 신자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권용란 세레나 010-9396-1397

◎ 다음 주일(9/1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0월 예정	청 소	19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8월 24일 ~ 8월 30일)

교 무 금	7,768,000원
주일헌금	4,626,000원
오라토리오 2차 헌금	1,354,000원
전형준10만원 정영자 1만원 최치용10만원	
정애자10만원 김수자10만원 박정순10만원	
김○○30만원 이승문 5만원 김시아 5천원	
최은화 6만원	
감사헌금	

◎ 교중미사 전례봉사회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9/4	손진희	심재순	장희석	윤상기	권태희
9/11	구민서	오성환	도현만	김덕영	민옥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일	06:30	10:30		12:00
9/4	최창열	박용환	김영배	최승일	박승환
9/11	김인기	박형순	최창열	황태영	박용환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함께 건설해 나가기

203. 진정한 사회적 대화는 다른 이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의 관점 안에 정당한 신념과 관심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화 상대방도 각자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개 토론이 더욱 충만해 지려면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각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고 가치와 신념을 확고히 고수하며 사고를 발전시켜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과정이 대화와 다른 이들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한에서만 효과적으로 실현됩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비록 우리 고유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집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진솔하게 끊임없이 대화하며 공통점을 찾아가고, …… 함께 일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공개 토의는 참으로 모든 이에게 자리가 마련되고 정보를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을 때, 더욱 적절한 방식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진리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이끄는 지속적인 자극제가 됩니다. 공개 토의는 다양한 분야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고유의 방식과 한정된 관심사 안에 안주하며 자족하고 있을 수 없게 합니다. “다름은 창조적인 것으로서 긴장을 창출해 내고, 인류의 발전은 긴장을 해결하는 데에 달려 있다.”는 점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204. 오늘날 전문화된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 학문들 사이에 교류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재도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다른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학문의 발전을 삶과 사회와 세상의 특정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법으로 간주해 버릴 위험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원이 자기 연구 분석에서 풍성한 성과를 내면서도 다른 학문들과 다른 지식들의 작업에 힘입어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실재의 다른 차원들도 파악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그는 그 실재를 더욱 통합적이고 충만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5. 세계화된 이 세상에서 “대중 매체는 우리를 서로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해 주고, 인류 가족의 새로운 일체감을 조성하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일체감은 모든 이의 더욱 존엄한 삶을 위한 노력과 연대를 재촉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중 매체는 특별히 인간 커뮤니케이션 관계망이 전례 없이 발전한 오늘날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모든 사람에게 만남과 연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으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들이 우리를 관대한 만남으로, 충만한 진리에 대한 성실한 추구로, 봉사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 공동선을 이룩하려는 노력으로 이끌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호주 주교들이 지적하였듯이,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악용하고 사람들에게서 가장 나쁜 것을 끌어내려고 설계된 디지털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